

무주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20대 직장인, 전북 87번째 양성 판정... 황인홍 군수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

무주군에 거주하는 박 모 씨(20대·직장인)가 코로나19 전북 87번째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1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무주지역 주재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 모 씨가 30일 오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황 군수는 "확진판정을 받은 박 모 씨는 17일 군산 모 가게를 방문했으며, 전북 54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역학 조사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박 모 씨는 전북 54번 확진 환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것을 인지한 후 21일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22일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후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고 30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보건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오후 최종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박 모씨는 31일 새벽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됐다.

무주군은 전북도와 함께 CCTV 등을 확보하고 박 씨의 이동 동선을 집중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된 동선에 대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1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무주지역 주재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 모 씨가 30일 오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황 군수는 "청정무주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박 씨의 추가 동선을 비롯한 접촉자 확인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전 기관 사회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

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황 군수는 "무주는 이보다도 더 큰 위기 때도 철저한 방역과 주민들의 철저한 생활 수칙으로 잘 이겨냈다"며, "추가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기자

진안 홍삼캐릭터 '빠망' 매력 발휘

전국 마스코트들 출연 서바이벌 예능 '내 꿈은 라이언' 출연

진안군 홍삼캐릭터 '빠망'이 카카오TV의 오리지널 디지털 예능 '내 꿈은 라이언'에 출연, 매력을 뽐냈다.

진안군 캐릭터 빨간망아지 '빠망'은 홍삼의 빨간색과 마이산의 망아지를 합성시킨 이름으로, 홍삼축제 기간에 빨간망아지 '빠망' 인형탈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캐릭터다.

9월 1일 카카오TV에서 첫 공개되는 '내 꿈은 라이언' 프로그램은 라이언이 톨 모델인 전국의 휴수저 마스코트들이 마에중에 입학해 수석 졸업생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진짜 사나이"를 연출했던 김민종PD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든든한 조력자가 나선 학생주인 우주 대스타 김희철과 담임 배우 심형탁, 생기발달 특별 교생 최우정에게 맞춤형 코칭과 트레이닝을 받으며 '수퍼투키'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마에중의 수석졸업생으로 선정된 마스코트는 장학금과 함께 카카오톡이 모티브인 출시 혜택을 받게 된다.

'빠망'은 경쟁 캐릭터와 차별화되는 발랄함과 남다른 패션 감각, 다재다능한 특기를 뽐내며 서바이벌에 도전해



최고의 캐릭터 자리를 노릴 예정이다.

'빠망' 캐릭터는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 전북사랑 UCC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2018 제1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맛집,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SNS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건, 인형, 텀블러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작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준성 군수는 "전국 마스코트들이 모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안군 홍삼캐릭터 '빠망'이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발휘해 제2의 라이언, 퀘스 등과 같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군,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9월 8일까지로 한주 연장된 가운데 무주군이 지난 25일부터 비대면(전화예약) 도서 대출(홈페이지·전화)·반납(반납기)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형설지공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 등 관내 도서관들(5곳)이 23일부터 임시 휴관했으며 무주군은 이용자 편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도서 대출을 전화 예약으로 진행한다. 도서 수령은 무주형설지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muju.go.kr>)에 들어가 이용 도서관(형설, 만나, 반딧불, 샘누리, 안성)에서 도서를 검색 후 전화예약(예약자에게 도서 수령시간 및 장소 안내 문자 전송)을 하면 다음날(주말 및 공휴일은 그다음 평일) 가능(수령 시 회원 증 제시)하다.

예약 접수시간은 무주읍 형설지공도서관(063-320-5622)이 오전 9~12시, 오후 1~5시까지이며 안성면 만나(070-8802-6000), 안성(063-323-0106), 살천면 반딧불(070-7743-8006), 무주읍 샘누리(063-323-2231)도서관은 오전 10~12시, 오후 1~5시까지다. (주말·공휴일 제외)

도서 대출가능 수량과 기간은 기존 대출 권수를 포함해 1인 5권, 총 21일로 반납은 무인반납기(군청)과 도서반납함(예제문화관 정문)을 이용하면 된다. 도서관이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도서자동화기기로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신간과 어린이 도서 등 150여 권(최대 250권)이 우선 비치돼 있으며 희망도서 신청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각 도서관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 처리 시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있으며 반납 도서는 책 소독기에서 30초 이상 소독 후 서고에 입고·처리하고 있다. 또 자료실 및 열람실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진행한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도서관팀 박민재 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서관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

로 반납은 무인반납기(군청)과 도서반납함(예제문화관 정문)을 이용하면 된다.

도서관이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도서자동화기기로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신간과 어린이 도서 등 150여 권(최대 250권)이 우선 비치돼 있으며 희망도서 신청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각 도서관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 처리 시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있으며 반납 도서는 책 소독기에서 30초 이상 소독 후 서고에 입고·처리하고 있다. 또 자료실 및 열람실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진행한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도서관팀 박민재 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서관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

지역 소식 통

무주군, 평생학습매니저 활동 본격 가동

무주군은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8월 말부터 평생학습매니저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6명의 무주군 평생학습매니저들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모니터링, 학습자 상담과 관리,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 평생학습매니저들은 무주군이 마련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기를 양성하기 위해 평생학습 양성 과정을 수요한 자들로 구성됐다.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학습매니저들에게는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돼 평생교육 리더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군수는 "전문적인 평생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리더 발굴 및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인적자원 발굴 및 평생학습 모델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언제든지 교육에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기자

진안군, 민원업무담당자 온라인 힐링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지난 31일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악성민원 응대 및 감정노동으로 지친 민원담당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교육 방식 대신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가진단 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마음치유를 위한 명상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추석 명절 맞아 29일까지 판매

장수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29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11개소와 장수신협, 무궁화신협(장계), 장수군신협조합, 새마을금고(장수, 산서, 장계), 우체국(장수, 장계)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개인은 월 100만원 한도에서 10%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단체와 법인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장수지역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약국, 병원 등 7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장수사랑상품권 200억을 발행했으며 추후 100억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편의와 대리구매,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10월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 할인된 장수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장수를 살리는 장수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 주천면, 문화누리카드 사용활성화 위해 마이산명인명품관 협업 상품 판매

진안군 주천면은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이산명인명품관과 연계한 문화누리카드 사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의 분야에 연간 9만원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주천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시설인

마이산 명인명품관과 협업해 명인작품으로 특별 상품을 구성, 저소득층에 문화누리카드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의 끝에 상품판매(안)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성된 문화누리카드상품은 무형문화재전수자들의 수공예 작품들로 '뽕쟁이 요리왕(천연염색 앞치마&한지스카프&한지부채)' + '행복한 밥상(한지밥상&꽃칠수저세트&자수면포)' + 건강부부(2인) 밥상(청자 밥국&로트세트&

꽃칠수저세트)+건강밥상(1인)(유기수저세트&청자밥국&로트세트) 총 4가지 세트 구성했다. 이를 명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을 제작, 우편발송 하고, 면사무소에 실제 샘플을 전시해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천면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 향상은 물론 마이산명인명품관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